

오늘은 2019년 11월 네번째 주일입니다.

2019년 11월 24일 언약교회 이모조모입니다.

- 1)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2)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실수도 있겠지만, '방문자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에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득불 아이들이 조금씩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이 익숙치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 뒤쪽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더 조용합니다.

1. 오늘 결석한 지체들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교제하며 지냅니다.
정찬미, 김은재, 김주형, 김수형, 민주, 이준상, 이영애, 최민지, 박용민, 이준, 이명규, 명성재, 조가람, 김예지, 곽영준, 반다혜, 장주현, 남아주, 김경환

오늘 장년 78명, 중고등부 6명, 초등부 8명, 유년부 6명, 유치부 9명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2. 11월은 <선교사님, 후원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개인, 가정별로 경제상황, 신앙수준에 따라, 물질로 주님과 교회를 섬깁시다.

- 1.루마니아(배만주) 2.일본(신해웅) 3.요르단(최**) 4.아프리카 내지 선교회(조운일)
- 5.라이프교회 5.에본교회 6.참좋은 친구들

3. 이번 토요일(11월30일) 교회 김장을 할 계획입니다.

4. 오늘 오후 모임 후, 중고등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5. 내년부터 선교사님 두분 선교비를 상향조정 합니다.

일본 신해웅 목사님 - 40만원(현재 20만)

조운일 목사님 - 20만원(현재 10만)

6. <11월> 재정보고를 주중에 올릴 예정입니다.

7. 올해도 예년처럼 12월22일(주일) 오후에 <바자회 및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가정과 개인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교회 계좌로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6 001 04 148 682 언약교회

우리은행 1005-901-708982 언약교회

신한은행 100-032-008667 언약교회

이번 한주간 동안도 다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